

우리 농축산물의 100% 주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송 찬 원
축협중앙회 회장

흔히들 백에 아흔아홉 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은 사람중 대다수, 거의전부, 혹은 예외가 거의 없는 상황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이달 7월 1일 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이 완전자유화됩니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율은 99.6%에 달한다는 발표가 얼마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0.4%에 해당하는 다른 품목들도 이미 조금씩 수입되고 있거나 길지 않은 시간내 수입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9.6%는 100%는 아니지만 백에 아흔아홉보다는 훨씬 전부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금이나 은도 순도가 99%를 넘으면 순금, 순은 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농산물, 축산물이 수입자유화 됐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무엇이 개방되지 않았느냐를 세는 편이 훨씬 빠르게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먹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외국에서 사다 먹을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제 우리 농축산업은 닫힌 보호공간에서 빠져나와 열린 들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온몸으로 그 바람을 맞을 수 밖에 없고 눈보라가 훑날려도 그 눈을 그대로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무심한 발이 짓밟고 지나가면 짓밟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거의 전부가 개방되었고 또 짠값을 무기로 우리 식탁을 점령해 들어 오는 그것들을 막기엔 우리 국토조건, 자연조건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농축산업은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그 뿌리가 지켜져야 하고, 얼음보다 차가운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하며, 그 어떤 크고 사나운 발이 밟고

지나가도 때를 맞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켜 가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말입니다.

농축산업은 바로 우리 국민의 식량산업이고 우리의 생업이자 고향을 지키는 소중한 민족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자유화율 99.6%에 맞서는 100% 경쟁력으로 대응한다면 열려진 99.6%는 물론이고 개방이 예정된 0.4%도 얼마든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축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중이 줄어 백에 하나꼴 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는 나머지 아흔아홉이 할 수 없는 소중한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축산업을 지켜야 하고 또 지켜져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논리와 대안들이 돌출되면서 그 당위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 축산인 스스로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같은 논리에 조금씩 빠져들어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개방과 경쟁으로 요약되는 시대의 조류속에 무엇보다도 우리 낙농육우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자포자기에 빠져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과 민족 전부의 미래를 위해 더 없이 소중한 시기에 축산업이라는 국민의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선 밖으로는 개방의 물결속에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이 시험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소비자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찾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우리 축산업의 일대 방향전환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성

개방과 경쟁으로 요약되는 시대의 조류속에 무엇보다도

우리 낙농육우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자포자기에 빠져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과 민족 전부의 미래를 위해 더 없이 소중한 시기에 축산업이라는 국민의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99.6% 농축산물 개방시대,
 이시대 우리 농축산업의
 100%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축산인들의
 심장과 의지가 더욱 뜨겁게
 달구어져 한아름
 7월 하늘의 햇살은
 차라리 한줄기 시원한
 장대비가 되고 말기를
 기대합니다.

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개방과 경쟁이라는 커다란 물결속에 그대로 좌초되고 말 것인가는 무엇 보다도 우리의 현장 낙농육우인들의 의지와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축산업과 축산물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땅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자신에 찬 마음자세와 확신이 필요하고 이 자신감과 확신은 그 뿌리인 현장의 축산인들로 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축산업의 주인공은 바로 현장의 농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같은 개방을 이겨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자금과 장비도 절대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축산업을 지키고 막아내겠다는 당사자인 우리들의 자신감과 사명의식이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농축산업을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이 아무리 충분히 이 분야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운용하고 담당할 사람들의 의지가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과정에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있는 농축산업 전사」가 정책과 제도의 잘못으로 좌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과 의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물론입니다.

축산인들의 의지와 이에 걸맞는 정책과 제도가 융합한다면 우리 축산업의 가능성은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99.6% 같은 수치들은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99.6% 농축산물 개방시대, 이시대 우리 농축산업의 100%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7월 이 여름의 뜨겁게 달아 오른 태양의 열기 이상으로 우리 축산인들의 심장과 의지가 더욱 뜨겁게 달구어져 7월 하늘의 한아름 햇살은 차라리 한줄기 시원한 장대비가 되고 말기를 기대합니다.☺